

곡성물 누적 매출 15억… 지역 경제 활성화 ‘톡톡’

지난해 10억 이후 꾸준히 성장
관내 120여개 농가·업체서 참여
매주 수요일 8개 품목 30% 할인
판로 확대·농가 소득 증대 기여

곡성군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곡성물’이 최근 누적 매출 15억원을 돌파하며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한층 더 기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억원 매출 달성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온 결과로, 곡성물의 성공적인 운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다.

17일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물은 지난 14일 누적 매출 15억원을 돌파했다.

곡성물은 관내 120여개 농가와 업체가 참여해 쌀, 한우, 토란 가공식품 등 560여종의 고품질 농축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신선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군은 이번 매출 15억원 달성에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이벤트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월 설 연휴 기획전부터 정월대보름 맞이 이벤트, 삼겹살데이 기획전, 곡

성물 입점업체 자체 할인 기획전 등 시기별 맞춤형 프로모션이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곡성 대표 농산물인 유기농 쌀 백세미와 한우, 흑돼지가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았으며 이 외에도 김부각, 사과, 멜론, 민물장어 등이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곡성물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8개 품목에 30%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수요 특가’ 행사와 ‘전 상품 무료배송’ 이벤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날부터는 나눔업체 응원 이벤트를 시작하며 곡성장미축제 특별전, 곡성 멜

론 기획전 등 시기에 따른 맞춤형 프로모션도 진행할 예정이다.

곡성물에 입점한 업체들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아동을 위한 기부에도 동참하고 있다. 오는 24일에는 착한 기부에 동참한 기부업체 기획전을 진행해 지역 상생 발전에도 이바지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입점 업체와 곡성물을 사랑해 주시는 소비자들의 도움으로 짧은 기간 동안 매출 15억원을 달성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품질 좋은 상품과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 더욱 사랑받는 쇼핑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목포경찰, 북한이탈주민 지원 모색 안보자문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목포경찰서는 17일 3층 이준규홀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국내 안보 현안 관련 자문을 듣기 위한 ‘2025년 상반기 안보자문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입회원들을 위촉하고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안보자문협의회 협력 치안 활동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병조 목포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안보자문협의회와 같은 단체들과 협력 치안 방안 확대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목포 경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해경, 인명구조 역량 강화 자격증 취득·갱신 교육 실시

목포해양경찰서가 오는 29일까지 해양 안전사고 대비 경찰관 인명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및 갱신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인명구조 역량 강화 교육은 목포해경 경찰관 150여명을 대상으로 경찰관 구조 역량 및 응급상황 시 대처 능력 강화를 중점으로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기초수영 △인명구조 영법 △구조장비 이용 인명구조방법 및 응급처치 등 이론·실습을 병행하며 신규 취득 과정은 5일, 갱신 교육과정은 8시간 동안 한국해양구조협회 소속 전문 강사의 지도로 진행된다.

목포해경은 파출소 근무 경찰관 대상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인명구조 자격증 보유율 80% 이상 유지를 목표로 지난해 34명 자격 취득, 174명이 자격을 갱신하며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발생에 대비해 경찰관 구조역량 강화는 필수적인 요소”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경찰관 구조 능력 역량 강화 교육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보급형 스마트팜 농가 확산 앞장 전남농협, 시군지부 사례 공유 등

농협 전남본부부는 지난 16일 고흥군 소재 보급형 스마트팜 농가를 방문해 스마트농업 현장 일손 돕기, ESG 실천 활동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농가 방문에서는 전남 관내 시군 지부장과 지사무소장 40여명이 참여해 전남농협 중점 추진사업인 보급형 스마트팜 도입·확대의 추진 방향도 공유했다.

홍양농협의 스마트팜 지자체 협력사업 우수사례를 청취하며 시군별 확산 가능성과 실질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영농철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사무소장들이 앞장서 스마트팜에서 재배 중인 오이 수확 작업에 참여해 일손을 보탬다. 농업·농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ESG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영농폐기물 수거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앞으로도 보급형 스마트팜 도입과 지자체 협력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와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에 지속적으로 힘을 계획이다”며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보급형 스마트팜 도입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목포시청 직원이 관내 한 도시락 배달음식점을 찾아 위생 점검을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목포시, ‘생활체육대축전 대비’ 위생 점검

목포시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에 대비해 도시락 배달음식점 106개소를 대상으로 18일까지 식중독 예방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17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오는 24일부터 목포를 중심으로 열리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기간 중 참가 선수단 및 관계자의 도시락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리식품의

위생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장 인근 도시락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장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도시락, 덮밥류 등 조리식품 5건 수거 검사 및 식중독균 검출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품의 판매·사용·보관 여부 △음식물 재사용 금지 및 종사자의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

생 준수 여부 △시설 내 위생 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목포시관계자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전국에서 수많은 방문객이 찾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사전 위생 점검을 통해 참가자 모두가 안심하고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나주시, 친환경·무상 학교 급식 138억 지원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도와 평균단가 인상 등 품질 관리

나주시가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무상 학교급식을 통해 아동과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균형 잡힌 식습관을 도모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무상급식비 92억원, 친환경 농산물 등 식재료 지원비 46억원 등 총 138억원 규모다.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등 163개소, 학생 1만6975명을 대상으로 먹거리 안전성이 검증된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공급하며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나주시가 교육지원청에 지급하는 무상 급식비는 각 학교에서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EaT) 시스템에 등록된 공급업체를 통해 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사용된다.

친환경 농산물로 구성된 식재료는 매달 나주시학교급식실무협의회에서 공급단가를 결정하고 학교급식 공급업체인 나주시조공법인(APC)을 통해 각 학교로 공급된다.

각 식재료는 매월 15점 내외의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관계자, 생산 농가, 공급업체 등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공급 품목 다양화와 양질의 식재료 공급을 도모하고 있다.

건강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급식비 평균단가도 인상에 지원한다.

한 끼니당 무상급식비는 3647원으로 지난해 대비 669원이 올랐으며 친환경 농산물은 1209원으로 214원, Non-GMO 식재료는 119원으로 50원을 각각 인상했다.

시는 무상급식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의 경우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의 자부담분에 대해 시비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동과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은 물론 우리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상생의 교육복지 정책이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양질의 식재료 생산과 검증, 공급에 힘써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고령층 대상 맞춤형 일자리 제공 국립장성숲체원 ‘시니어 안전지기’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장성숲체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산림복지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고령층의 산림복지 분야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1월까지 장성군 북이면에 거주하는 어르신 4명이 ‘시니어 안전지기’로 활동하며 산림복지 노인 일자리 모델을 구축한다.

국립장성숲체원의 ‘시니어 안전지기’는 거주지 내 숲에 대한 경험이 많은 어르신인 숲길 안내, 프로그램 보조, 환경 정비 등 다양한 산림복지 활동을 지원하는 고령층 맞춤형 일자리다. 고령층의 사회적 소외감 해소, 건강증진, 지역사회와의 연결이라는 복지적 가치를 함께 담아 의미를 더했다는게 국립장성숲체원의 설명이다.

장성=유봉현 기자